

2016~17년 가천인을 위한 추천 도서 100권

(*추천 판본이 있는 경우에만 옮긴이와 출판사를 표기)

1. 한국문학

- 『입 속의 검은 잎』 (기형도 지음)
- 일상 속에 내재하는 폭압과 공포의 심리구조를 표현한 유고시집
*2016년 <세계고전으로의 초대> 강연도서
- 4월4일(월) 2시, 비전타워B103호, 이광호 교수 강연
- 『고래』 (천명관 지음)
- 격렬하고 파괴적인 인간의 욕망을 압도적인 서사로 담아낸 소설
『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』 (박완서 지음)
- 1930~50년대를 배경으로 한, 박완서의 대표적 자전소설
『김수영 전집1-시』 (김수영 지음)
- 날카로운 언어와 자유에 대한 절규, 치열한 시 정신이 담긴 시집
『당신들의 천국』 (이청준 지음)
- 개인과 집단,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보여준 장편소설
『덕혜옹주』 (권비영 지음)
- 조선 최후의 황족 덕혜옹주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
『두근두근 내 인생』 (김애란 지음)
- 가장 어린 부모와 가장 늙은 자식의, 청춘과 사랑을 그린 소설
『밤은 노래한다』 (김연수 지음)
- 1930년대 동만주 일대에서 벌어진 '민생단 사건'을 다룬 소설
『사평역에서』 (곽재구 지음)
- 역사의 현장에 몸 붙이고 사는 젊은이의 함성이 배어 있는 시집
『소년이 온다』 (한강 지음)
-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
『아랑은 왜』 (김영하 지음)
- 16세기부터 전해오는 <아랑 전설>을 21세기로 불러들인 소설
『아름다운 날들』 (성석제 지음)
- 기발한 상상력과 예리한 풍자로 주목받은 작가가 쓴 성장소설
『원미동 사람들』 (양귀자 지음)
- 80년대 도시민적 삶의 풍속도에 삶의 진실을 담은 연작 소설
『정본 백석 시집』 (백석 지음, 문학동네)
- 토속적인 언어로 향토색 짙은 서정 세계를 표현한 백석 시집
『토지』 (박경리 지음, 마로니에북스)
- 구한말에서 1945년에 이르기까지 민중들의 삶을 그린 대하소설

2. 외국문학

- 『어린이왕자』 (생텍쥐페리 지음, 송태효 옮김)
어린이왕자의 시선으로 묘사된 어른들의 세계를 비추는 이야기
*2016년 <세계고전으로의 초대> 강연도서
- 3월14일(월) 2시, 비전타워B103호, 송태효 교수 강연
- 『1984』 (조지 오웰 지음)
- 전체주의 지배 시스템에서 개인의 저항을 다룬 디스토피아 소설
『거미 여인의 키스』 (마누엘 푸익 지음, 송병선 옮김)
아르헨티나의 혁명가가 감옥에 수감되어 생긴 일들을 그린 소설
『라마야나』 (R. K. 나라얀 지음)
- 2천 년의 동양 고전을 인도 소설가 나라얀이 소설화한 작품
『노르웨이의 숲』 (무라카미 하루키 지음)
-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춘의 아픔과 사랑을 그린 하루키의 대표작
『뉴욕 3부작』 (폴 오스터 지음)
- 탐정 소설의 형식을 차용한 자아 탐색의 단편 모음집
『루쉰 소설 전집』 (루쉰 지음, 김시준 옮김)
- 민족의 고뇌를 담은 루쉰 소설 33편을 모두 모은 소설집
『맥베스』 (셰익스피어 지음)
- 야망의 늪에 빠진 정직한 영혼이 파멸해 가는 이야기
『바보들을 위한 학교』 (사샤 소콜로프 지음)
- 정신분열증을 앓는 소년의 내면을 그려낸 성장소설

- 『백년의 고독』 (가브리엘 마르케스 지음)
- 신화적 요소를 도입하여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다룬 소설
『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』 (치누아 아체베 지음)
서구 세력에 맞서 부족의 문화와 풍습을 지키려는 이야기
『악의 꽃』 (보들레르 지음)
-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의 삶의 역경이 담긴 시집
『에르미타』 (시오닐 호세 지음)
- 필리핀 근현대사를 배경으로, 매춘부가 된 여성의 이야기
『일리아스』 (호메로스 지음, 천병희 옮김)
- 그리스 문화의 원형이자 서양 정신의 출발점인 장편 서사시
『잃어버린 환상』 (오노레 드 발자크)
- 근대인이 추구하는 정신과 물질과 명예의 꿈이 그려진 소설
『적절한 균형』 (로런틴 미스트리 지음)
- 인도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인물들의 행복과 불행을 그린 소설
『제노사이드』 (다카노 가즈야키 지음)
- 인류 종말의 위협과 이를 둘러싼 음모를 담은 추리 스릴러
『제로 형제의 시련』 (윌레 소잉카 지음)
- 독립 전후 나이지리아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지적한 풍자극
『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』 (요나스 요나손 지음)
- 스웨덴 시골에서 태어난 노인이 살아온 100년 세월을 그린 소설
『천 개의 찬란한 태양』 (할레드 호세이니 지음)
-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작가가 그려낸 두 여자 이야기
『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』 (도스토예프스키 지음)
-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에 대한 문학적 성찰이 담긴 소설
『파우스트』 (요한 볼프강 폰 괴테 지음)
- 중세 유럽에서 전하는 파우스트 박사 이야기를 극화한 작품
『파이 이야기』 (얀 마텔 지음)
- 열여섯 살 인도 소년 파이가 겪은 227일 간의 표류기
『폭풍의 언덕』 (에밀리 브론테, 김정아 옮김)
- 영국의 황량한 들판을 배경으로 사랑과 복수를 그린 소설
『전쟁의 슬픔』 (바오 닌, 하재홍 옮김)
- 전쟁의 비극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소설

3. 인문·사회 (철학, 역사, 사회, 경제)

- 『증여론』 (마르셀 모스 지음, 이상률 옮김)
- 선물 교환의 유형과 사회적 구조의 관계를 정립한 책
*2016년 <세계고전으로의 초대> 강연도서
- 3월28일(월) 2시30분, 비전타워B103호, 조영근 교수 강연
- 『간디 자서전』 (마하트마 간디 지음, 박홍규 옮김)
- 진실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서 간디의 면모를 담은 책
『감옥으로부터의 사색』 (신영복 지음)
- 20년간 수감 생활을 한 작가의 사회와 고뇌를 담은 산문집
『검은 피부 하얀 가면』 (프란츠 파농 지음, 이석호 옮김)
- 알제리 독립 전쟁을 배경으로 한 식민주의 심리학
『경역의 모험』 (존 브룩스 지음)
- 기업의 본질과 그 안의 인간 본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 책
『고독한 군중』 (데이비드 리스먼 지음, 류근일 옮김)
- 군중의 심리 분석과 대중사회의 매커니즘을 파헤친 고전
『국부론』 (아담 스미스 지음, 김수행 옮김)
- 나라의 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책
『나를 부르는 숲』 (빌 브라이슨 지음)
- 길에서 만난 우정과 대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책
『낮은 곳에서 나를 만나다』 (한국문화인류학회 지음)
- 학생과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게 다룬 문화인류학 입문서
『대한민국은 왜?』 (김동춘 지음)
-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의 형성과 권력 행사 과정을 다룬 책

『리바이어던』 (토마스 홉스 지음, 신재일 옮김)

- 17세기 사회계약론자의 인간관과 국가관을 볼 수 있는 책

『미움받을 용기』 (기시미 이치로 지음)

- 철학자와 청년이 행복한 인생을 위한 답을 찾아가는 심리학 책

『본노하라』 (스테판 에셀 지음)

- 무관심이야말로 최악의 태도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

『블루오션 전략』 (김위찬, 르네 마보안 지음)

- 블루오션 전략으로 성공한 기업들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 책

『사회를 구하는 경제학』 (조형근, 김중배 지음)

- 한국사회의 사회, 경제적 쟁점을 고찰한 경제학 책

『삶을 위한 철학수업』 (이진경 지음)

-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교감한 일상의 철학 이야기를 묶은 책

『생명의 윤리를 말하다』 (마이클 샌델 지음)

- 유전공학 시대의 윤리라는 주제를 쉽게 풀어낸 책

『세계화의 윤리』 (피터 싱어 지음)

- 국제적 현안들에 얽힌 강대국의 비윤리성을 고발하며 세계화 담론의 도덕적 의미를 논증한 책

『소크라테스의 변명』 (플라톤 지음, 강철웅 옮김)

- 젊은이를 타락시킨 죄로 고발당한 소크라테스가 재판에서 어떤 말로 자신을 옹호했는지를 재현하는 형식으로 된 플라톤의 저서

『연암에게 글쓰기를 배우다』 (박현찬, 설흔 지음)

- 박지원의 글쓰기 비밀을 추적하여 글쓰기 방법을 제시한 책

『예루살렘의 아이히만』 (한나 아렌트 지음)

-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참관을 바탕으로 한 책

『용재총화』 (성현 지음, 김남이, 전지원 옮김)

- 조선 전기의 역사, 문화, 풍속, 제도를 기록한 책

『우주의 끝에서 철학하기』 (마크 롤랜즈 지음)

- SF영화를 통해 철학의 주요 문제들을 살펴보는 책

『인간답게 죽는다는 것』 (야마카타 겐지 지음)

- ‘인간답게 죽는 것’에 대한 답을 담은 책

『조화로운 삶』 (헬렌 & 스콧 니어링 지음)

- 자연 속에서 실천한 조화로운 삶의 원칙과 생활을 기록한 책

『츄츄키와 푸코,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』 (노암 촘스키, 미셸 푸코)

- ‘인간의 본성’에 관한 두 철학자의 생각을 담은 책

『텔레비전에 대하여』 (피에르 부르디외 지음)

- 텔레비전에 담긴 검역의 메커니즘과, 텔레비전이 예술, 문학, 철학, 정치와 갖는 관계를 설명한 책

『파놉티콘』 (홍성욱 지음)

- 사이버시대의 전자 감시, 데이터 감시에 관한 연구서

『프로이트의 의자』 (정도연 지음)

- 정신분석을 쉽게 풀이하여 독자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책

『호모 루덴스』 (요한 호이징아 지음, 김윤수 옮김)

- 인간의 존재와 행위 양식의 본질을 규명하는 시도를 보여준 책

4. 과학

『과학혁명의 구조』 (토마스 쿤 지음, 홍성욱 · 김명자 옮김)

- 현대 물질문명을 받쳐주는 과학의 본질적 성격을 파헤친 고전

•2016년 <세계고전으로의 초대> 강연도서

- 5월13일(금) 3시, 메디컬캠퍼스 간호대학 211호, 예방일 교수 강연

『부분과 전체』 (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지음, 김용준 옮김)

- 하이젠베르크가 과학의 발전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 성찰한 책

•2016년 <세계고전으로의 초대> 강연도서

- 5월16일(월) 2시30분, 비전타워 B103호, 이강영 교수 강연

『인간은 왜 늙는가』 (스티븐 어스태드 지음, 최재천 옮김)

- 노화에 대해 탐색하여 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는 책

•2016년 <세계고전으로의 초대> 강연도서

- 4월25일(월) 1시30분, 메디컬캠퍼스 간호대학 211호, 민경진 교수 강연

『객관성의 칼날』 (찰스 길리스피 지음)

- 과학의 역사와 오류의 변화를 알려주는 과학사 에세이

『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』 (스티븐 호킹 지음)

- 우주와 시간의 역사로 우주의 본질에 대한 이론을 다룬 책

『다윈의 서재 - 진화하는 지식의 최전선에 서다』 (장대익 지음)

- 46명의 과학자가 쓴 56권의 책을 만날 수 있는 책

『만들어진 신 - 신은 과연 인간을 창조했는가?』 (리처드 도킨스)

- 출산과 동시에 과학계와 종교계에 파란을 일으킨 책

『빅 히스토리』 (데이비드 크리스천, 밥 베인빅 지음)

- 137억년 우주의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조망한 책

『우연을 길들이다』 (이언 해킹 지음, 정혜경 옮김)

- 통계가 어떻게 우연을 과학으로 만들었는지 살펴보는 책

『인간적인, 너무나 인간적인 뇌』 (리처드 레스락 지음)

- 마음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 20가지에 관한 답변을 담고 있는 책

『의학, 인문으로 치유하다』 (예병일 지음)

- 인간을 의식을 가진 생명체로 바라보며 치유를 모색하는 책

『중의 기원 2013, 옥스퍼드컬러판』 (찰스 로버트 다윈 지음)

- 생물의 진화론을 확립하여 많은 학문에 큰 영향을 미친 고전

『축적의 시간』 (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음)

- 우리 산업의 당면 문제를 진단한 책

『침묵의 봄』 (레이첼 카슨 지음)

-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일깨워 준 책

『LHC,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』 (이강영 지음)

- 힉스 입자 발견을 둘러싸고 물리학계에서 일어난 일을 다룬 책

5. 예술

『건축가 없는 건축』 (버날드 루돌프스키 지음)

- 기존의 건축 계보에 포함되지 않던 토속 건축을 소개하는 책

•2016년 <세계고전으로의 초대> 강연도서

- 5월2일(월) 2시, 비전타워 B103호, 전숙희/장영철 건축가 강연

『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』 (손철주 지음)

- 작품 너머의 ‘이야기’로 독자들을 그림의 세계로 안내하는 책

『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』 (발터 벤야민 지음, 최성만 옮김)

- 벤야민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책

『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서서』 (최순우 지음)

- 한국미의 현장을 사색적으로 터치한 글들을 모아 놓은 책

『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4』 (아돌프 하우저 지음, 백낙청 옮김)

- <문학과 예술의 사회사>의 25년여 만의 개정판

『미의 역사』 (움베르트 에코 지음)

- '미'라는 관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추적한 책

『미학 오디세이 1』 (진중권 지음)

- 작가 특유의 재담으로 이끌어가는 미학 이론서

『서양미술사』 (곰브리치 지음, 백승길, 이종승 옮김)

- 서양미술사 개론의 필독서

『시학』 (아리스토텔레스 지음, 이상섭 옮김)

- 비극을 최고 문학으로 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담긴 책

『알랭 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』 (알랭 드 보통 지음)

- 예술을 즐기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책

『예술이란 무엇인가』 (레프 톨스토이 지음, 이철 옮김)

- 톨스토이의 예술관이 담긴 책

『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』 (오주석 지음)

-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강연 내용을 정리한 책

『철학을 삼킨 예술』 (한상연 지음)

- 예술이 왜 아름다운지,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

『컨템포러리 아트란 무엇인가』 (테리 스미스 지음)

- 컨템포러리 아트에 대해 역사적 접근법으로 알려주는 책

『홍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』 (이영미 지음)

- 노래 가사를 통해 대중가요를 분석한 대중가요사